

광주 축제통합브랜드 'G-페스타-시즌2' 연다

시, 17~26일 6개 지역축제 선배 김치축제 등 '테이스트 광주' 주제 시즌1 '조이풀'서 총장축제 등 인기 가을 축제 통합브랜드 효과 특출

올해 첫 선을 보인 'G-페스타 광주'가 관광객과 시민, 참여기관의 만족도를 높이며 통합브랜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특히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우수사례로 'G-페스타 광주'를 언급해 전국적 관심을 높였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9일간 17개의 축제·행사·마이스를 담은 통합브랜드 'G-페스타 광주'를 열고 있다. 마이스(MICE)는 회의·관광컨벤션 전시 등 부가가치가 큰 복합 전시 산업을 뜻한다.

예술 콘셉트로 구성된 시즌1 '조이풀(Joyful) 광주'는 이날까지 아시아문화주간을 끝으로 마무리되고, 시즌2 '테이스티(Tasty) 광주'는 17일부터 26일까지 광주김치축제, 광주식품대전, 광주주류관광페스타, 광주서창역새축제, 광주송정남도맛페스티벌, 동명커피산책 등 6개의 축제를 통해 광주의 맛을 알린다.

'G-페스타 광주'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개별 축제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축제 간 연계와 통합홍보를 놓치지 않은 것이

다. 먼저 지난달 25일 지역 이스포츠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열린 '빛고을캠퍼스 이스포츠대회'에서는 관람객이 젊은 층이라는 점을 겨냥해 'G-페스타' 유료행사인 렛츠플로피와 비어페스트의 할인쿠폰을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광주 최대 맥주축제인 '비어페스트'는 같은 달 25일부터 29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개최,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과 무대를 공유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또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대표 문화콘텐츠 전시회인 '광주에이스페이'에서는 3만6000여명(2023년 3만5000여명)의 관람객과 3억6500만달러 규모(2023년 2억달러)의 수출상담액의 성과를 냈다.

특히 국내외 바이어 470여명이 참여하는 네트워킹 파티를 비어페스트광주행사에서 진행해 참가자들에게 이색 경험을 선사했다.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렛츠플로피 2.0'은 광주에이스페이와 비어페스트 방문객들에게 스트리트컬처 문화를 선보여 K-스트리트컬처 성지로 발돋움하는 광주의 모습을 알렸다.

'총장발광(光)'을 주제로 금남로와 충장로 일원에서 열린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10월 2~6일)에는 광주버스킹월드컵

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아시아문화주간이 잇따라 열려 광주를 대표하는 도심 축제의 면모를 보여줬다.

광주시는 개별 축제 현장에서 'G-페스타 광주' 통합홍보 부스를 운영, 다양한 축제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G-페스타 광주'는 숙박할인 프로모션

(9월26일-10월31일)이 연일 선착순 마감되는 등 인기를 실감케 했다. 특히 지난달 25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가관광전략회의 확대조정회의'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지역 축제 통합브랜드 우수사례로 'G-페스타 광주'를 언급하며 지역관광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G-페스타 광주' 시즌1에 함께해 주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맛을 주제로 열리는 'G-페스타 광주' 시즌2에도 많은 관심과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산 세계야시장 광주 광산세계야시장이 지난 12일 광주 광산구 월곡동 광주고려인마을특화거리 일원에서 열려 태국, 베트남, 인도 등 각국의 전통의상을 입은 이주민들이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광산구가 주최하고 월곡2동 산정상인회, 이주민공동체, 고려인마을특화거리 사업단 등이 후원했다. 김양배 기자

전남도, 우수 수산물 국제인증 확대 나선다

수산양식관리협의회 업무협약

전남도는 지난 1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수산양식관리협의회(ASC)와 지역 우수 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물 국제인증 저변 확대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과 수산양식관리협의회회의의 크리스틴스(Chris Nannes) 글로벌 CEO, 이수용 한국대표, 전남 어업인 대표, 수산양식관리협의회 인증 어가, 수출업체, 수협조합장 등 30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제 인증표준 개정 시 전남의 수산업 여건을 인증표준에 반영 △인증 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한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유지 프로그램 발굴 △인증 심사위원 및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어업인 교육 협력 △인증 수산물 확대를 위한 시장 인지도 개선 공동 노력 등이다.

전남도는 협약에 따라 지역 수산물의 국제 인증 확대를 내수 프리미엄시장과 해외시장에 진출하도록 수산양식관리협의회와 협력하고, 국제 인증 요구 수출시장 신규 진입으로 전남 수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오는 31일까지 신청 접수 농촌 정주여건 개선 기대

전남도가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3ha 이하 소규모 자투리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접수한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도로, 택지, 산단 등 개발 후 남은 3ha 이하 자투리 농지로,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가 낮고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은 농업진흥지역이다. 전남도는 당초 지난 6월과 8월 2차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받았으나, 농지 이용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 증가에 따라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이와 더불어 소규모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위해 농지 관할 시군을 통해 앞서 4개월간 접수했으며, 지난 8월 시군 농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농지 관할 시군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자투리 농지 개발 계획을 수립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전남도에 제출하면 기본 요건을 심사해 농식품부로 제출한다.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후 11월 중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며, 이후 전남도는 확정된 지역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관련 절차를 연내 이행할 계획이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151만2000ha 농지 중 전남은 18.2%인 27만4000ha로 가장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 농업진흥지역은 76만9000ha로 이중 전남은 21.7%인 16만7000ha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지역 전체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전국 2만1000ha의 21.7%인 4500여ha로 추정된다.

오지현 기자

2024 찾아가는 여순사건 바로알기 골든벨

○ 행사명 : 2024 찾아가는 여순사건 바로알기 골든벨

○ 일시 및 장소

① 2024년 10월 17일 (목) 13:30~15:10 / 여수 무선중학교

② 2024년 10월 21일 (월) 13:40~15:20 / 순천 별량중학교

○ 진행 방법 : 개인별 서바이벌 퀴즈 골든벨 대회

○ 시상 내역 : 골든벨 수상자 시상품 제공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주최/주관 전남일보·전일엔컬스 후원 전라남도·전라남도교육청